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매일경제신문, 한국무역협회 정책세미나

# 미국 신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 일 시 : 2016년 11월 16일(수) 14:00 ~ 17:00
- 장 소 :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주 최 :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매일경제신문, 한국무역협회

## 모시는 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물론 EU를 포함한 전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난 속에서 올해 6월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하는 것을 계기로 전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EU는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해 덤핑 조사에 들어갔으며, 중국 또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열에 가세하여 비관세 장벽을 쌓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신정부 출범을 통해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2017년 1월, 미국은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온 공약을 보면 기본적인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입니다.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난과 더불어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사회 불만이 누적됨에 따라 '미국우선주의'가 심화되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선거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주요 대선 공약인 자유무역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과 제조업 보호를 위한 높은 관세 장벽의 도입은 쇠락한 제조업 지역인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신정부는 한미 FTA를 실패한 협정으로 규정하며 전면적 재협상을 예고하였습니다.

트럼프 신정부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대중국 무역관계의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위안화의 절하를 통해 대미 수출을 증가 시켰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의 산업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결과적으로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전세계 교역 규모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을 포함한 주요 정책방향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소장 김 동 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김 극 수

## 프로그램

Time	Program
14:00~14:30	<b>등록</b>
14:30~14:45	<b>개회사</b> 개회사 : 김동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소장) 축 사 : 김중훈 (前 통상교섭본부장)
14:45~15:45	<b>세션 1 : 주제 발표</b>  사 회 :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발표 1 : 제현정 박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b>미국 신정부의 대외통상정책</b> 발표 2 : 김원기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b>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 : 금융, 재정, 이민정책</b> 발표 3 : 허 정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새로운 수출모델의 모색과 정책과제</b>
15:45~16:00	<b>중간 휴식</b>
16:00~17:00	<b>세션 2 : 패널토론</b>  사 회 :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 강준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번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00	<b>폐 회</b>